

INTRO

창작집단 H8E는 공연예술의 형태를 넘어,
텍스트로 예술과 현대, 인간의 본질을 깊게 사유하며 공유하고자 합니다.

【 Title 】

<획의 간극>

존재의 간극 :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는가.

① 사라지는 존재들 : 사회적 실종과 개인의 소멸

“영혼도 기체에 가깝나? 그럼 나는 21그램?”

연극적 약속에 의해 극 중 인물 혹은 죽음 이후 영혼의 소멸 단계를 거쳐 에너지원의 형태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겪는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경제적 실패, 실직, 사회적 낙인 속에 점점 소외되고 마침내 사회적으로 ‘퇴출’된 존재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들을 본다. ‘보이지 않는 실종’을 경험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들.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 온라인에서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실종’을 목격하는 것이다.

사회적 실종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서서히 진행된다. 그것이 필연적이던, 자발적이던. 시간의 흐름은 일정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빠르고 냉정하다. 시대 흐름과 사회변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사라져가는 누군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은 쉽게 도태된다. 그 대상이 나 자신, 가까운 지인, 혹은 시대의 흐름 속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얼마나 선명한 상태인가? 의 질문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② 현대인의 퇴출 메커니즘 : 보이지 않는 낙인과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

획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실직 이후에 나름의 노력과 발버둥을 치지만 실패의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지고, 다시 시스템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극적 설정이지만, 현실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극 중 획의 상황처럼 해고된 후 빠르게 재취업하지 못하면 경력 단절자로 낙인찍히고, 결혼과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존재로 보인다. SNS에서 꾸준히 활동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간다.

사회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밀어낸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실패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 과연 우리는 시스템을 거스르고 살아갈 수 있는가? 퇴출되지 않기 위해 달리는 삶은 과연 우리의 것인가?

③ 남겨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 존재의 흔적

획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 유서를 쓰고, 자신의 과거를 더듬으며, 어딘가에 자취를 남기고자 한다.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사라질지를 선택할 수는 있다. 타인의 인식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자문이 필요하다.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가, 혹은 사라지기 전에 더 명확해지고 싶은가.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흔적이 아니다. 관계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의미 속에서 우리는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극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④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 빠르게 달리는 삶,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다. 경쟁은 선택지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더 빨리 달리고, 매 순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질문한다.

과연 달리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누군가는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며 안정을 얻는다. 반면 누군가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잊혀지고 만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반드시 정답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가?

그로 인한 사회적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라져가는 이들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편집/발행 : 창작집단 H8E

